

간호대학생의 COVID-19 로 인한 감정,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련성

신승옥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Nursing students' Feelings of COVID-19, Work Valu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Seung-Ok Shin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COVID-19로 인한 감정,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일개 지역의 졸업학년인 간호학과 4학년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9.0 program으로 분석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COVID-19로 인한 감정의 평균 점수는 3.61 ± 0.62 이었다. COVID-19로 인한 감정과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COVID-19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취업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코로나-19, 간호대학생, 외재적 직업가치관, 내재적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of feelings, work valu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 and to prepare plans for the curriculum and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a questionnaire for 130 students 4th grade, who are graduating grades in one region.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SPSS Win 19.0 program and correlation was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verage score for emotions from COVID-19 was 3.61 ± 0.62 .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eelings and extrinsic values from COVID-19. There was a significant repayment relationship with intrinsic work values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se studies, it is meaningful to provide an effective way to prepare for employment programs and provide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COVID-19.

Key Words : COVID-19, Nursing Students, Extrinsic Work Values, Intrinsic Work Value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질병관리본부청의 COVID-19(코로나-19)에 대한

국외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월20일 COVID-19 환자 39,919,642명, 사망자 1,111,554명으로 조사되었다[1]. 국내발생 COVID-19 확진자는 21,783명, 사망자는 447명에 이르고 있다[2]. 세계보

*Corresponding Author : Seung-Ok Shin(rnokkk@daum.net)

Received November 8,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Revised December 6,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건기구(WHO)에서는 COVID-19을 2020년 2월 11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 감염병으로 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 대유행이 되고 있다. COVID-19 (Coronavirus disease-20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SARS-CoV-2 감염에 의한 신종호흡기 증후군으로 제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속하는 법정 감염병이다. 특히 COVID-19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되는 데 숨을 내쉬거나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비말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 COVID-19는 특히 다른 사람과 약 2m 이내로 밀접한 접촉시 전파가능성이 높아 사람 간의 접촉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은 COVID-19 확진자 발생추이를 보면서 단계별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COVID-19 확진자 증가와 사망자 발생이 있어, COVID-19에 대한 백신 등의 치료법 개발에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지만 현재 개발단계로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다[3].

1급 감염병인 COVID-19는 당초보다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글로벌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다. COVID 19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보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장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감축하고 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사람간의 접촉이 차단되어 사회적 활동을 못하거나 직장을 잃게된다. 이러한 가계 소득의 감소가 결국 사회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고 있다[4].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8월 취업자는 2,709명으로 1년 전보다 60만명이 감소하여 COVID-19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OVID-19 상황에 따라 취업자수가 달라지고 있다[5]

COVID-19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장기간의 경기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졸업을 앞두고 사회로 진출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예비 졸업생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다. 졸업학년인 경우 저학년의 경우보다 취업을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이다. Park&Kim(2015)은 직업을 결정하여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취업하고자 준비해나가는 활동을 한다[6].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구직기관에 맞추어 취업에 필요한 활동을 함으로서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대학생활 동안 학점관리, 어학점수 향상, 정보화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전공연계 자격증 취득 및 교과 외 활동 등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한다[7]. 간호대학생의 경우 타 전공학과에 비해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지난 10년간 간호학과의 신설로 인한 졸업생 증가로 과거보다 취업경쟁이 높아졌으며 높은 학업성과 다양한 스펙을 갖기 위한 취업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8].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은 개인이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신념과 달성하고자 하는 취업목표와 관련될 수 있다. Kang(2018)은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생각이라고 하였다[9]. 직업 가치관은 자아실현의 목표로 달성하고자 하는 태도이며 급여, 보수, 근무환경 등의 외재적 영역과 성취감, 적성과 흥미 등의 내재적 영역으로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의 직업적 가치적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10].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학과보다 취업률이 높았으나 조기 이직률이 높고 졸업 후 미취업자도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직업가치관을 가지고 취업준비행동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2020년은 현재 COVID-19로 인해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위축되어 구인 인원이 줄어들면서 취업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발생한 COVID-19와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COVID-19로 인한 정서적 감정과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을 파악하여 추후 간호대학생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취업준비행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COVID-19로 인한 감정,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이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COVID-19에 대한 감정에 대해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COVID-19로 인한 감정,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COVID-19로 인한 감정,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COVID-19로 인한 감정,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 간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지역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중 졸업을 앞두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5명을 조사하였으나 불충분한 응답인 중복응답 또는 무응답한 6부를 제외하고 총 130부를 최종적인 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코로나(COVID-19)로 인한 감정

COVID-19와 관련된 도구는 Sung(2015), Yoon(2015), Kwon(2019)[11-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부정적 요소에 대해 설문한Chol(2020)[14]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메슬로의 인간욕구단계 관련성, 불안, 두려움 등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으면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1이었다.

2.3.2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 척도는 Kalleberg(1977)와 Mietus(1977)의 연구를 토대로 국내 대학생들에게 적용한 Ahn&Lee(1998)과 Han(2014)의 연구의 도구를 사용하였다[15,16]. 직업가치관은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4문항으로 급여, 명예, 근무환경, 경제적 안정이 포함되며, 내재적 가치관은 4문항으로 성취감, 적성, 능력발휘, 사회봉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도구는 총 8문항으로서 내재적 가치관(Intrinsic values) 4문항과 외재적 가치관(Extrinsic values)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의 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전체 Cronbach's α = .75이었고, 하위요인중 외재적 가치관은

Cronbach's α = .74, 내재적 가치관은 Cronbach's α = .80이었다

2.3.3 취업준비행동

본 연구의 도구는 Han[9]이 개발한 도구와 Lee&Kim(2004)의 도구에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17]. 이력서와 관련한 경력, 어학, 전공자격증, 학점관리, 취업특강, 외부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항목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5점 '매우 그렇다' 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하는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전체 Cronbach's α = .77이었다

2.3.4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절차

연구 전 IRB의 심의를 통과하여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졸업반을 대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자료는 연구조사 전 간호대학생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 연구 내용, 비밀보장, 자료분석 후 자료삭제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총 130부 자료를 분석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COVID-19로 인한 감정,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COVID-19로 인한 감정,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과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대학생 4학년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학생 중 여학생은 110명(84.6%)으로 남학생 20명(15.4%)보다 다수를 차지하였다. 취업을 원하는 병원규모는 상급병원이 42명(32.3%), 종합병

원은 63명(48.5%), 무응답은 25명(19.2%)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20	15.4
	Female	110	84.6
Hospital size	Large hospital	42	32.3
	General Hospital	63	48.5
	None	25	19.2

3.2 COVID-19로 인한 감정

본 연구대상자의 COVID-19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4.24 ± 0.72)의 항목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미래에 비슷한 감염병의 발생의 두려움' (4.06 ± 0.83)이 다음 항목으로 높게 인식되었다. 'COVID-19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두려움' (2.97 ± 1.14)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Table 2. Feelings of COVID-19 (n=130)

Items	M±SD
1. Fear of infection	3.52±1.15
2. Danger to life	3.55±0.98
3. Need for social distancing	3.62±1.05
4. Dangerous than other infectious disease	4.04±0.84
5. Fear of lack information	2.97±1.14
6. Fear of not getting job	3.53±1.08
7. Financial difficulties	3.04±1.05
8. Need for social distancing	4.24±0.72
9. Fear of recurrence	4.06±0.83
total	3.61±0.62

3.3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정도

직업가치관은 Table 3와 같다. 5점 만점에 평균 $4.00(\pm 0.45)$ 로서 하위요인인 내재적 가치관은 평균 $3.78(\pm 0.62)$, 외재적 가치관은 평균 $4.21(\pm 0.51)$ 이었다. 취업준비행동은 평균 $3.11(\pm 0.65)$ 이었다.

Table 3. Mean score of Work valu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n=130)

Variables	M±SD	Min	Max
Work values	4.00±0.45	3.00	5.00
- Intrinsic values	3.78±0.62	1.75	5.00
- Extrinsic values	4.21±0.51	2.75	5.00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3.11±0.65	1.17	5.00

3.4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COVID-19로 인한 감정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COVID-19로 인한 감정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12$, $p<.001$)을 보였고, 직업가치관과 COVID-19로 인한 감정($r=.236$, $p<.01$)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Work values, and Feelings of COVID-19 (n=130)

Variables	1)	2)	3)	4)	5)
Feelings of COVID-19 1)	1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2)	.126	1			
Work values 3)	.236**	.312**	1		
Intrinsic values 4)	.141	.326**	.836**	1	
Extrinsic values 5)	.245**	.154	.746**	.259**	1

**p<.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COVID-19로 인한 감정, 직업가치관과 취업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추후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현재 신종감염증후군인 COVID-19는 2020년 새롭게 발생된 감염병으로 간호대학생의 COVID-19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있어 논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취업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관련성에 대한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COVID-19상황에서 졸업학년인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COVID-19로 인해 느끼는 감정 수준 총 평균은 3.61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4.24점, '미래에 비슷한 감염병의 발생의 두려움' 4.06점으로 나타났고, Chol et al[8]의 연구에서는 각각 4.40점과 4.45점으로 나타나 재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았다. Chol et al[8]의 연구의 시점이 5월이고 간호대학생의 연구시점이 10월로서 COVID-19 상황에 대한 확인자 발생과 정부의 방침이 다를 수 있으나 두 연구 모두 재감염으로 인한 두려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질병의 심각성 인식수준은 4.26점으로 높아 그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18]. 현재 COVID-19에 대한 치료제가 없고 COVID-19의 특성상 호흡기로 인한 감염 확산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부정적인 정서는 COVID-19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사회적 거리지침 준수로 인한 관계단절과 사람 간 소통의 감소가 부정적인 정서 감정 중 1순위로 뽑았다[19]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TV이나 영화, 게임, 신체활동 등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나[19] 지속적인 COVID-19 상황에서 불안과 무기력감이 가중될 수 있어 심리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건강한 대학생활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 평균점수는 4.00점이며, 외재적 가치관이 4.21점으로 내재적 가치관 3.78점보다 높았다. 보수, 지위, 경제적 안정, 근무환경 등을 적성, 성취감과 봉사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재적 가치관이 높았다[9]. Kang[9]연구에서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앞두고 있어 현실적인 부분인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관은 취업준비행동 및 COVID-19로 인한 감정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직업가치관이 높으면 취업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거나 취업준비행동이 높으면 직업가치관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가치관 중 적성과 성취감 등이 높으면 취업준비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Kim[7]의 연구에서도 직업가치관 중 성취, 봉사, 변화지향 등의 내적 가치가 취업준비행동과 상관관계가 관련이 있었다.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을 하는데 현실적인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직장의 만족도를 본 연구에서 미래의 전망, 적성과 흥미 적합 정도가 직장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졸업 후 취업 시 대형병원에서 경력을 쌓거나 급여조건을 만족하고자 대형병원 쏠리는 것이 현실이다[21]. 대형병원은 응시자격에서 어학점수와 전공관련자격증, 높은학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스펙관련하여 취업준비에 있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취업준비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22]. 그러나 대형병원에서 퇴직하는 것도 많아 첫 직장의 만족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직업가치관과 관련한 진로에 대한 관심과 계획에 대해서는 입학시 부터 개인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입학시 부터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며 스스로 내재적 직업가치관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며[20] 고학년 때에는 취업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직장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 이직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로서의 직업가치관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COVID-19와 관련한 감정은 직업가치관 중 급여와 명예 등의 외재적 가치관과 관련이 있었다. 내적과 외적 가치가 심리적 관점과 물리적 관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에 따라 어디에 관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3]. COVID-19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은 심리적 관점으로 현실을 반영한 급여와 명예 등의 외재적 관점과 관련이 있다. COVID-19라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일부병원에서 COVID-19 감염자가 발생되거나, 시민들은 병원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원에서 채용을 미루거나 적은 인원을 뽑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취업을 해야 하는 졸업생으로서는 급여나 경제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자기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한 직업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간호하는 간호대학생으로서 전공과 관련한 내재적 가치관을 높여 주도록 COVID-19 상황과 같은 재난상황에서의 의료인으로서 역할과 직업 의식에 관한 자료를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COVID-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지금 사회변화에 맞추어 간호서비스의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24]. 간호교육과 관련하여 재난교육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재난의 식과 재난 준비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25,26]. 그리고 추후에는 COVID-19와 관련한저학년을 대상으로 직업가치관 및 취업준비행동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개지역 대학의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 COVID-19에 대한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의 평균이 높았다.

COVID-19의 감정과 직업가치관은 관련이 있으며 직업가치관 중 외재적 가치관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직업가치관 중 적성, 성취감 등 내재적 가치관과 관련은 취업준비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COVID-19는 현재 재난과 관련된 상황으로 감염병 관련 재난과 같은 다양한 사례와 재난 간호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과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더불어 저학년 때부터 진로교육 및 다양한 취업기관 안내 제공과 그에 맞는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0).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Cases in Republic of Korea(Online). http://ncov.mohw.go.kr/infect/occurrence_info.do?infect_no=in_202010200001&pageIndex=&disease_no2=&search_nm=
- [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0).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Cases in Republic of Korea(Online).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0367&contSeq=360367&board_id=&gubun=ALL
- [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20).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Cases in Republic of Korea (Online). <http://ncov.mohw.go.kr/faqBoardList.do?brdId=3&brdGubun=38>
- [4] S. W. Park. (2020). Corona 19 economic impact and policy response direction. *Weekly Financial Brief*, 29(6), 3-10.
- [5] Y. U. Kim. (2020). Corona crisis and employment trends in May. *Korea Labor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Issue Paper*, 2020(10), 1-11.
- [6] I. S. Park & , M. J. Kim. (2015). Influence of job selection motive and occupational values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 preparation behavior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airline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9(6), 139-151.
- [7] M. S. Kim. (2019). The Analysis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Career Attitude Maturity Influenc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00), 96-105
- [8] M. H. Choe, J. H. Kim, E. S. Nam, M. Y. Lee, H. J. Hwang et al. (2015).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2). , DOI : 10.5807/kjohn.2015.24.2.122
- [9] J. S. Kang. (2018). Effects of Work Values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the Major Commit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2), 447-455, DOI : 10.5762/KAIS.2018.19.2.447
- [10] J. E. Jo. (2016). The Effect of Work Values of Airline Service Employee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1(6), 47-62.
- [11] J. B. Sung. (2015),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and Satisfaction of Self-gift Consumption Behavi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12] J. H. Yoon. (2015). A study on perspective taking and compensatory consumpt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3] Y. K. Kwon. (2019). A Study on the Types of Death Fear Affecting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Kwon, Yongkyun Major in Marketi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14] J. Y. Chol. (2020). Impact of social risk by COVID-19 on consumption psychology and consumption behavior. Yonsei University. Seoul.
- [15] K. H. Ahn & Y. H. Lee. (1998). A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the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7(1), 1-17.
- [16] K. C. Han. (2014).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17] Y. J. Han. (2013).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18] M. H. Park. (2020) . Awareness about pandemic influenza, Ethical Awareness, and Ethical Decision-making among Nursing Students in the

situation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0), 335-344.

- [19] H. J. Yang. (2020). Responding to negative emotions in COVID-19, 135-143, August 31,
- [20] Y. G. Joo & S. Y. Han (2014). Investigating the Impact on Job Satisfaction of the First Job: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with School Support and Major Programs, Intrinsic Work Value and Extrinsic Work Valu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8(2), 53-75.
- [21] S. W. Hwang, & H. S. Cha. (2020). Factors Influenc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5), 131-140,
DOI : 10.5762/KAIS.2020.21.5.131
- [22] H. Jung. Jang & J. H. Lee. (2020).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9), 62-70.
- [23] J. E. Joo. (2016). The Effect of Work Values of Airline Service Employee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s*, 31(6), 47-62.
- [24] O. E. Geum. (2020). Perspectives on Nursing Profession for a Post-COVID-19 New Norma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2(3), 221-222.
- [25] S. A. Yang. (2018).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3), 39-51.
- [26] J. E. Park. (2019). A Convergence Study on Disaster Awareness, Disaster Preparedness, and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1), 38-46.
DOI : 10.22156/CS4SMB.2019.9.11.038

신 승 옥(Seung-Ok Shin)

[정회원]



- 2014년 8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근거중심간호, 건강증진
- E-Mail : rnokkk@daum.net